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iguration of the Inner-Courtyard at the Single - Detached Urban Dwellings

尹 在 雄**

YOON JAE W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iguration of the inner-courtyard (MADANG) at the single-detached urban dwellings in Taegu using the documentary research and survey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e inner-courtyard existed in the designation and necessity, facilities, and needs in the future of the open space at the single-detached urban dwellings.

Although people who were in their 30s favored the western style of house and garden, people who were in their 50s favored the traditional style of inner-courtyard.

Finally, the concept of inner-courtyard at a single-detached urban dwelling is gradually changing to that of western garden.

I. 서 론

주거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표현체로서 지속성과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주거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적 사상으로 구체화된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주거문화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관계, 가치관, 사상, 공간개념, 구조기술 등이

표현되며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천속에서 형태와 의미, 기능 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의 생활양식과 기후, 풍토에 맞는 독자적인 주거문

* 이 연구는 1995년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내 일반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되었음.

** 정회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공학박사

화를 형성·발전시켜왔다. 한국 전통주택은 목구조의 재료 및 구법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앞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부속채들을 배치하고 외곽에 담장을 둘러 막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당은 외부공간이긴하나 안채와 맞물린 한쪽의 공간으로 내부공간에서 못다이룬 주거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半內部空間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 주거에만 있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우리의 주거문화는 타율에 의한 외래문물의 유입으로 가치관, 주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서구적인 주거문화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도시에는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보편화되고 마당이 축소된 단독주택이 보급되어 우리 주거문화의 전통적 맥락과 가치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어 전통성 회복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주거의 여러 부분 중 문화적 전통요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의미와 변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전통요소의 지속 정도를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을 통해 전통주택의 마당에 내재된 의미와 기능, 변화양상 등을 정리한다.
2.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마당에 대한 의식과 현상, 이용실태 및 미래의 활용요구 등을 조사, 분석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통성의 지속 정도와 요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한국 전통주택의 마당은 채(棟)와 동반되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채의 분화와 함께 여러 유

형으로 구분된다. 마당은 위치나 형태에 따라 앞마당, 뒷마당, 안마당으로 구분되며, 상류주택에서는 사랑마당, 행랑마당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채 앞의 외부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택 외부공간인 마당은 여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주택이 삶의 터전인 까닭에 주생활 가운데서 마당의 의미와 역할,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전통주택 마당의 사상적 배경과 상징성

한국 전통주택의 마당과 관련된 사상적 배경은 토속신앙과 음양사상, 풍수사상 등이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주택의 대지선택은 물론 配置와 坐向, 평면구성, 특히 안채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토속신앙에서 주택은 家宅神들의 거처로서 神殿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聖主神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하여 태어난 으뜸신으로 집안의 중심이 되는 마루에 坐定하여 가족과 家門 전체의 吉凶禍福을 관장하고, 地神은 마당에 한정된 神이면서도 동서남북과 중앙을 통솔하고¹⁾ 집안의 재산을 수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聖主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장소인 마당神, 즉 地神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가족과 家門으로서의 집이 무궁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당은 살림집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장소로 인식되어 본채와 불가분의 접근성을 보여왔다.

풍수설의 양택론에서, 坐向은 마당의 중심에서 안채를 보았을 때의 방위, 즉 건물이 앉을 자리와 건물이 대면하는 外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집 주인은 물론 집안의 운명까지 결정된다고 믿었다²⁾. 여기서 주택을

1) 曹成基, 韓國傳統住宅의 안마당에 관한 研究, -神話的 思惟體系를 통하여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11卷1號, 1995.1.p.73.

2) 曹成基; 앞 논문 P.72.

풍수상의 局으로 해석해 보면 주 건물로서의 살림채가 자리하는 곳은 穴이고, 穴 앞의 마당은 明堂인데, 明堂은 원래 국가 주요행사를 치루던 宮殿에서 유래하였듯이 穴 자리의 살림채를 敬拜하는 주종관계의 격으로 인식하였다³⁾. 穴과 明堂은 天地間을 流轉하는 生氣가 모여있는 要諦로 하늘에 있는 것을 陽氣, 땅 속에 있는 것을 陰氣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陽氣에서 生氣를 입기 위해서는 땅속의 生氣와도 관계가 있지만 지상의 지형세로부터도 직접 生氣를 享受할 수 있는 것임으로 주위 형세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⁴⁾.

陽宅에서의 마당은 수직적으로 땅 속의 地氣를 함양하고, 天氣를 호흡하는 곳으로, 집의 출입문은 수평적으로 주변의 氣를 호흡하는 통로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통주택에서는 방위의 향에 따라 流轉하는 氣와 집의 감응관계가 중시되어 왔으며, 입체적으로 氣를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마당의 前後左右에 건물이나 담장을 세우고, 출입문은 모두 마당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陰陽論에서 萬物은 陰陽의 조화에 의해 생명력을 갖는다고 보고, 건물과 마당은 각기 땅과 하늘의 기운, 즉 天氣를 받는 장소로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장소인 마당이 땅의 기운을 받는 건물과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가족과 家門으로서의 집이 무궁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집의 마당 가운데 부분이 陰이라면, 주위 陽의 공간인 건물들과 함께 공존함으로써 陰陽의 조화를 강조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여러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마당은 건물과 상대적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인 陽·陰의 속성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건물이 갖는 양의 속성인 遠心性은 약화되고, 마당이 갖는 陰의 속성인 求心性이 강화되어 마당은 강한 中心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⁵⁾

2. 한국 전통주택 마당의 성격과 기능

한국 전통주택의 마당이 갖는 특성은 木체(棟)와 담장에 의해 영역성과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반 내부공간적 개념으로 텅비어 있으며, 각 방들의 연장으로서 삶을 담는 공간의 의미가 강한 점이다. 이러한 마당의 공간적 성격은 二重性, 餘白性, 轉用性, 媒介性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⁶⁾. 여기서 二重性은 마당이 건물 외부에 있으면서도 내부적 공간성을 띄고, 각 실을 격리시키면서도 시각적 연결의 효능을 갖는다는 점이며, 餘白性은 어떤 특정의 목적이나 내용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워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轉用性은 시간을 격하면서 다양한 주생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적 의미이며, 媒介性은 외부와 내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말한다.

전통주택의 마당에 내재된 의미와 기능은 크게 상징적인 면과 일상생활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징적인 면에서의 마당은 원래 안채와 맞물린 한쪽의 공간으로서 原初的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결코 俗될 수 없는 根源的 공간이고, 인간이 처음 주거형태를 취할 때부터 계획된 장소의 원상, 마루와 더불어 聖性의 중심으로서 小宇宙인 집의 中核的 장소 등으로 인식되어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를 형성해온 상징체였다⁷⁾. 일상생활적인 면에서의 마당은 가족단위의 내부성을 도모함에 있어 일상 생활기능 뿐만 아니라

4) 曹成基 ; 앞 논문. P.77.

5) 李應熙, 李重雨 ; 東洋思想의 中心性을 통하여 본 傳統住居의 마당空間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11卷5號, 1995.5. P. 66.

6) 송용호 ; 도시주택의 원형과 중정식 주택, 건축과 환경, 1986.2. P.102-102.

7) 曹成基 ; 韓國 民家에 있어서 안마당의 性格, 韓國 住居學會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2卷, 1991. P.4.

3) 姜榮煥 ;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5. P. 235.

집안의 풍요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행해지는 세시풍속, 통과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일상 생활기능으로는 통로, 채광, 통풍 및 식품 저장, 세탁·건조 등의 가사작업과 놀이, 접객, 단란 등 내부공간 기능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간성, 계절성을 가지고 교차·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름철에는 주로 농산물의 탈곡과 건조, 길쌈, 세탁 등의 가사작업과 가족 단란의 장이 되고, 겨울철에는 각종 생활용품이나 장독대등 식품류의 저장공간으로 제공되었다. 장독대에는 장류를 주로한 식품류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는 부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冠婚喪祭와 같은 大事가 발생하면, 마당은 음식의 조리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이 모여드는 집회장, 즉 의식수행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변화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1920년대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 주택난을 발생시켰고, 외래 주거문화의 유입에 따른 住生活의 합리화와 住空間 사용의 편리성 추구 등으로 도시 단독주택은 점집화 경향을 나타내었다⁸⁾.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의 미니 2층이라는 주택형식의 보급과 아파트 문화의 정착 등으로 현관이 도입됨에 따라 주택 각 실과 외부와의 연계성을 상실케 하였고,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설비·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의 단위평면내에서 住機能이 자체완결되는 住空間의 內宅化를 초래하였다.

이와같이 도시 단독주택이 재래의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구조에서 건물만을 중시하는 외향적 구조로 변모됨에 따라 마당의 의미와

기능도 변화하였다⁹⁾. 현재의 도시주택 마당은 전통주택의 상징적, 적극적인 생활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일조를 위해 마련된 공간, 또는 주거 내부에서의 조망, 휴식 등이 강조되는 정원으로 변용되어가고 있으나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전이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아직도 持續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전통주택의 마당에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와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해 3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후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2) 거주자들의 마당에 대한 의식과 필요성, 활용 요구도 3) 마당의 구성 및 사용실태, 미래의 활용 요구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에 건립된 단독주택으로 한정, 단순 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설문지를 배부, 회수 하였다.

본 조사는 1996. 3. 20 - 4. 10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본 대학에서 주거학 강의를 수강하고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

8) 李炳旭 ; 都市住居 住生活 空間의 變遷에 관한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8.12. P.69.

9) 任昌福 ; 韓國都市單獨住宅의 類型的 持續性과 變用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10. P.97.

생들을 선발하여 이를 본인 또는 이웃집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 취지와 기재방법 등을 설명한 후 배부, 회수토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것은 제외하고 228부(91.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구하고, χ^2 -test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주부연령은 40대가 43.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1%, 50대가 32.5%였다. 학력 분포는 중졸이하 34.2%, 고졸 47.0%, 대졸 이상이 18.4%로 비교적 낮은 학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9.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영업으로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원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52.2%, 200-300만원이 24.6%, 100만원 미만이 12.7%, 300만원 이상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 유형은 한옥이 8.3%, 한·양절충식이 16.7%인 반면 양옥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규모는 주거·준주거지역의 주택인 60평 이하가 8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61평 이상은 14.5%에 불과 하였다. 주택 건립년수는 5년 미만이 25.4%, 5-10년 미만 34.2%, 10년 이상이 40.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택이 74.6%였으며, 현 단독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47.4%, 5-10년 미만이 31.1%, 10년 이상이 21.5%로 나타났다.

2. 마당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

1) 주택 외부공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주택의 외부공간인 마당을 거주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가족들이 부르고 있는 호칭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 결과 62.3%가 마당, 29.4%가 정원으로 호칭하고 있었다. 외부공간의 호칭과 거주자특성과의 χ^2 검정결과(표1,2) 주부연령은 $p<.001$ 수준, 대지규모는 $p<.01$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1> 주부연령별 호칭 빈도(%)

	40세미만	40-49세	50세이상	계
마당	15 (27.3)	69 (69.7)	58 (78.4)	142 (62.3)
정원	31 (56.4)	25 (25.3)	11 (14.9)	67 (29.4)
기타	9 (16.3)	5 (5.1)	5 (6.7)	19 (8.3)
계	55 (100.0)	99 (100.0)	74 (100.0)	228 (100.0)

d.f=6 $\chi^2=40.47^{***}$

***p<.001

<표2> 대지 규모별 호칭 빈도(%)

	40평이하	41-60평이하	61평이상	계
마당	43 (59.7)	83 (67.5)	15 (45.5)	141 (61.8)
정원	17 (23.6)	32 (26.0)	18 (54.5)	67 (29.4)
기타	12 (16.7)	8 (6.5)	0 (0.0)	20 (8.8)
계	72 (100.0)	123 (100.0)	74 (100.0)	228 (100.0)

d.f=6 $\chi^2=17.05^{**}$

**p<.01

즉 주부연령 40대를 기준으로 50대 이상에서는 마당으로 호칭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전의 젊은층 주부일수록 그리고 대지규모가 커질수록 정원으로 호칭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앞으로 도시 단독주택의 외부공간은 점차 정원으로 조성될 것이 예상된다.

2) 마당에 대한 의식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마당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마당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라는 과거 민간신앙적 주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가 47.4%,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가 48.7%로 나타났으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3.9%에 불과 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집의 외부공간인 마당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의식 속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거주자 특성과 χ^2 검정결과(표3) 주부연령의 관계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3> 주부 연령별 의식 빈도(%)

		40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	계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	그런것같다	14 (25.5)	49 (49.5)	45 (60.8)	108 (47.4)
	긍정도부정도 않는다	37 (67.3)	45 (45.5)	29 (39.2)	111 (48.7)
	그런것같지 않다	4 (7.2)	5 (5.1)	0 (0.0)	9 (3.9)
	계	55 (100.0)	99 (100.0)	74 (100.0)	228 (100.0)

d.f=4 $\chi^2=18.75^{***}$

***p<.001

즉 주부연령 50대 이후는 마당의 전통적 의미에 중요성을 높게 두는 반면 40대 이전의 젊은층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3) 마당의 필요성 인식정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마당공간의 필요성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87.3%가 반드시 있

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로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12.3%나 있었다. 이것은 1970년 이후 도시 주택의 내부화, 대지의 효율적 이용욕구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과거 전통주택에서의 마당이 갖는 의미와 기능 등이 현재까지 관념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의 필요성 인식 정도와 거주자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χ^2 검정을 한 결과(표4) 주부연령만이 p<.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주부연령이 높아질수록 마당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통적 주거관에 의한 마당의 의미는 연령이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표4> 주부 연령별 마당의 필요성 빈도(%)

	40세미만	40-49세	50세이상	계
반드시 있어야 한다	34 (61.8)	93 (93.9)	72 (97.3)	199 (87.3)
통로 정도만 있어도 된다	21 (38.2)	5 (5.1)	2 (2.7)	28 (12.3)
없어도 된다	0 (0.0)	1 (1.0)	0 (0.0)	1 (0.4)
계	55 (100.0)	99 (100.0)	74 (100.0)	228 (100.0)

d.f=4 $\chi^2=46.53^{***}$

***p<.001

3. 마당의 구성실태

1) 마당의 유무

현재 살고있는 집의 마당 유무를 조사한 결과 71.4%가 주생활 기능을 수행하는 「마당이 있다」고 답하였고, 「마당을 정원으로 꾸몄거나 건물을 증축한 경우」도 각각 15.4%, 4.4%로 나타났다. 마당 유무와 거주자 특성과의 χ^2 검정 결과(표5) 대지규모와 주거유형의 관계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5> 대지규모별 마당의 유무 빈도(%)

	40평이하	41-60평이하	61평이상	계
마당	43 (59.7)	83 (67.5)	15 (45.5)	141 (61.8)
정원	17 (23.6)	32 (26.0)	18 (54.5)	67 (29.4)
기타	12 (16.7)	8 (6.5)	0 (0.0)	20 (8.8)
계	72 (100.0)	123 (100.0)	33 (100.0)	228 (100.0)

d.f=6 $\chi^2=17.05^{**}$

**p<.01

대지규모 60평 이하의 주택에서는 생활기능을 담는 마당이, 61평 이상에서는 마당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주거유형별 마당 유무는 한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당을 가진 집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양절충형, 양옥의 순이었다. 건립연대와 주거유형과의 χ^2 검정 결과(표6)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건립연대가 근년일수록 양옥이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 건립연대별 주거유형 빈도(%)

	5년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한옥	3 (5.2)	3 (3.8)	13 (14.2)	19 (8.3)
양옥	53 (91.4)	65 (83.3)	52 (56.5)	171 (75.0)
한양 절충형	2 (3.4)	10 (12.9)	27 (29.3)	38 (16.7)
계	58 (100.0)	78 (100.0)	92 (100.0)	228 (100.0)

d.f=9 $\chi^2=27.70^{***}$

** p<.001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지규모가 크고, 주거기능이 내부화된 서구식 주택일수록 전통적 의미를 가진 마당보다 정원 조성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도시 단독주택의 외부공간은 점차 조망과 휴식이 강조되는 정원으로 변용되어갈 것임을 알 수 있다.

2) 마당의 마감 상태

조사 대상주택의 외부공간인 마당은 현재 시멘트 몰탈마감이 5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잔디+보도블럭이 28.9%를 차지 하고 있다. 마감재료와 거주자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χ^2 검정을 한 결과(표7) 건립연대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건립연대 5-10년 미만을 기준으로 5년미만은 시멘트 몰탈과 잔디+보도블럭 마감의 비율이 높은 반면, 10년 이상은 상대적으로 시멘트 몰탈과 흙, 자갈 등 기타 재료로 마감된 주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 도시주택 외부공간의 마감재료는 시멘트 몰탈과 더불어 잔디+보도블럭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표7> 건립 연대별 마당 마감상태 빈도(%)

	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계
시멘트	36 (62.1)	35 (44.9)	53 (57.6)	124 (54.4)
잔디+보도 블럭	18 (31.0)	28 (35.9)	20 (21.7)	66 (28.9)
기타	4 (6.9)	15 (19.2)	19 (20.7)	38 (16.7)
계	58 (100.0)	78 (100.0)	92 (100.0)	228 (100.0)

d.f=9 $\chi^2=22.04^{***}$

***p<.001

3) 마당의 시설물 설치

조사주택의 마당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회답을 구하여 종류별 설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빨래 건조대와 외부 화장실이 58.0%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세탁장, 장독대, 운동기구 등의 순이었다. 이를 건립연대, 대지규모 등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결과(표8) 건립연대가 오래된 집일수록 화장실, 세탁장, 빨래건조대, 장독대의 설치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년 이상 주택에서 외부 화장실 설치가 8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에서는 빨래 건조대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장독대, 세탁장, 차고 순이다.

대지규모와의 관계(표9)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

포를 보이고 있으나 61평 이상에서 외부 화장실, 장독대를 설치한 가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고, 빨래건조대, 세탁장이 설치된 집도 48.5%정도나 있었다. 여기서 외부 화장실이

<표8> 건립년도별 시설물 설치현황 빈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세탁장	24(41.4)	39(50.6)	51(54.8)	114(50.0)
빨래건조대	32(55.2)	47(61.0)	51(54.8)	130(57.0)
연탄창고	6(10.3)	10(13.0)	27(29.0)	43(18.9)
운동기구	10(17.2)	18(23.4)	14(15.1)	42(18.4)
목욕실	6(10.3)	6(7.8)	14(15.1)	26(11.4)
차고	23(40.0)	18(23.4)	16(17.2)	57(25.0)
화장실	19(32.8)	39(50.6)	75(80.6)	133(58.3)
가축사	6(10.3)	16(20.8)	18(19.4)	40(17.5)
장독대	25(43.8)	40(51.9)	39(41.9)	104(45.6)
정원	31(53.4)	48(62.3)	60(64.5)	139(61.0)
채소밭	4(6.9)	12(15.6)	21(22.6)	37(16.2)
기타	12(20.7)	11(14.3)	11(11.8)	33(14.5)

* 중복응답

<표9> 대지규모별 시설물 설치현황 빈도(%)

	40평 이하	41-60평 이하	61평 이상	계
세탁장	34(47.2)	64(52.0)	16(48.5)	114(50.0)
빨래건조대	45(62.5)	69(56.1)	16(48.5)	130(57.0)
연탄창고	14(19.4)	23(18.7)	6(18.2)	43(18.9)
운동기구	9(12.5)	24(19.5)	10(30.3)	43(18.9)
목욕실	12(16.7)	13(10.6)	1(3.0)	26(11.4)
차고	11(15.3)	30(24.4)	16(48.5)	57(25.0)
화장실	32(44.4)	82(66.7)	19(57.6)	133(58.3)
가축사	8(11.1)	20(16.3)	12(36.4)	40(17.5)
장독대	24(33.3)	62(50.4)	18(54.5)	104(46.1)
채소밭	6(8.3)	20(16.3)	11(33.3)	37(16.2)
기타	13(18.1)	14(11.4)	34(14.9)	34(14.9)

* 중복응답

설치된 집이 많은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대지 규모가 큰 집은 대개 다가구주택들로 세입자들을 위해 마당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60평 이하는 외부 화장실이,

40평 이하는 빨래 건조대의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특기할 것은 대지규모가 작아질수록 장독대의 설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좁은 마당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장독대를 마당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마당 사용실태와 미래의 활용 요구

조사 대상주택 거주자들의 마당 사용실태와 미래 활용요구에 대한 다중회답을 구한 결과 마당 사용실태는 생활용품의 수리나 손질, 세탁, 건조 등 각종 가사작업과 통로로의 이용이 각각 61.0%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무, 화초, 채소가꾸기(57.0%)였다. 이를 대지규모별로 살펴본 결과(표10) 60평 이하는 가사작업과 통로로의 이용이 많고, 61평 이상에서는 나무, 화초, 채소가꾸기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60평 이하는 대개 주거·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건폐율이 높아 마당 면적이 적고, 60평 이상은 주거전용지역 내의 주택으로 건폐율이 50%로 낮아 마당 면적이 많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10> 대지 규모별 마당 사용실태 빈도(%)

	40평 이하	41-60평 이하	61평 이상	계
가사작업	46 (63.9)	78 (63.4)	15 (45.5)	139 (61.0)
손님접대	7 (9.7)	6 (4.9)	4 (12.1)	17 (7.5)
놀이 및 운동	24 (33.3)	43 (35.0)	9 (27.3)	76 (33.3)
가족모임 및 파티	5 (6.9)	1 (0.8)	4 (12.1)	10 (4.4)
화초,채소 가꾸기	32 (44.4)	70 (56.9)	28 (84.8)	130 (57.0)
통로	41 (56.9)	82 (66.7)	7 (51.5)	140 (61.4)
가축사육	6 (8.3)	15 (12.2)	4 (12.1)	25 (11.0)

* 중복응답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앞으로 주택의 외부공간인 마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주거공간 내부에서의 조망과 휴식을 위해 마당을 정원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용도로 활용하거나 텃밭, 가축사육등을 희망하는 경우는 각각 27.6%, 10.5%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용도 활용과 텃밭, 가축사육, 채소가꾸기 등을 합해 보면 38%정도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전통적인 마당에 대한 의식이 거주자들에게 비교적 많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의 마당 활용요구와 거주자 특성에 따른 χ^2 검정 결과(표11)주부연령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11> 주부연령별 미래 활용요구 빈도(%)

	40세미만	40-49세	50세이상	계
다용도 활용	11 (20.0)	24 (24.2)	28 (37.8)	63 (27.6)
정원조성	40 (72.7)	60 (60.6)	31 (41.9)	131 (57.5)
텃밭·가축사육	3 (5.5)	8 (8.1)	13 (17.6)	24 (10.5)
건물증축	1 (1.8)	6 (6.1)	1 (1.4)	8 (3.5)
기타	0 (0.0)	1 (1.0)	1 (1.3)	2 (0.9)
계	55 (100.0)	99 (100.0)	74 (100.0)	228 (100.0)
d.f=8		$\chi^2=19.23^{**}$		

**p<.01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연령별로 보면 주부연령 50세 이상은 다용도 활용과 텃밭, 가축사육을, 40대 이하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원 조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 주택이 1970년대 이후 보급된 서구식 주거유형으로 현관이 설치되어 주거 각실과 외부공간인 마당과의 연결성이 상실되어 있고,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주거 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져 주거기능이 자체완결되는

주공간의 내실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 단독주택 마당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과 사용실태, 미래의 활용요구 등을 조사하여 마당공간의 변용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주의식에는 전통적인 마당 의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주택 외부공간인 마당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평소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도 정원보다는 다양한 주생활 기능을 수행하는 마당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마당을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과거 민간신앙적 주거관이 아직도 도시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당은 건물과 한 짝의 공간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라는 의식과 호칭 등은 연령과 관계가 깊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의식의 지속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젊은층이 노년이 되는 미래에는 전통의식의 지속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대상주택의 마당(외부공간)은 시멘트블탈이나 잔디+보도블럭으로 마감하여 빨래건조대, 외부화장실, 세탁장, 장독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마당의 의미가 다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당의 구성상태는 주거유형, 대지규모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거유형은 건립연대가 근년일수록 주거기능이 내부화된 서구식의 양육이 점차 늘어나고, 대지규모가 커질수록 조망과 휴식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하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지만 외부 화장실, 장독대, 세탁장, 건조대 등이 계속 설치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앞으로 도시 단독주택 마당은 점차 정원으로 변용되어갈 것이 예상

되지만 전통주택의 마당에 시설되어왔던 장류의 보관시설, 세탁, 건조장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마당은 현재 생활용품의 수리나 손질, 식품저장, 세탁건조 등 각종 가사 작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지규모가 커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원을 조성하여 조망과 휴식 기능을 강조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활용요구에서는 서구식의 양육에서, 주부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원조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용도 활용, 텃밭이나 가축사육 등을 희망하고 있어 전통적 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구식 주거유형이 늘어나고 젊은층이 중년층이되는 미래에는 마당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상실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의미와 기능은 앞으로 점차 정원 개념으로 변용되어 갈것이 예상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주거유형, 대지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李熙德, 風水地理說,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1983.
2. 任東權, 韓國民俗文化論, 集文社, 1983.
3. 姜榮煥,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4. 崔吉城, 韓國民間信仰의 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9.
5. 張百基, 韓屋의 易理의 空間 解析, 大韓建築學論文集, 제5卷 제1호, 1989.2.
6.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4.
7. 李相海, 民宅三要를 통하여 본 朝鮮 陽宅들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제4卷 제6호, 1988.12.
8. 俞在賢, 穴과 明堂의 關係를 통하여 본 韓國 傳統 建築空間의 中心概念에 관한 研究, 蔚山大學校 研究論文輯 제10卷 제2호, 1979.
9. 金奉烈, 안마당의 性格, 建築과環境, 1986.2.
10. 任昌福, 韓國 都市 單獨住宅의 類型的 持續性과 變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10.
11. 曹成基, 韓國傳統住宅의 안마당에 관한 研究 -神話의 思惟體系를 통하여-, 大韓建築學會 論文輯 제11卷 1호, 1995.1.
12. 曹成基, 韓國民家에 있어서 안마당의 性格, 韓國住居學會 學術發表大會 論文輯 제2卷, 1991.
13. 李應熙 外, 東洋思想의 中心性을 통하여 본 傳統住居의 마당공간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제11卷 5호, 1995.5.
14. 鮮于正媛, 韓國傳統住宅 마당의 尺度·比例 分析을 통한 閉鎖性 및 開放性에 관한 研究 -朝鮮時代 上流 住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15. 李炳旭, 都市住居 生活空間의 變遷에 관한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8.12.
16. 奇亮,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채(棟)와 마당의 視知覺的 相關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3.
17. 朴春植, '50年代 以後 單獨住宅의 變遷에 관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6.